

향린교회 목회운영위원회

2018년 5월 회의록

목회운영위원 신앙고백

우리는 목회운영위원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향린교회의 창립정신을 구현하고,
교회갱신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각자 속한 부서와 신도회의 충성스런 입이 되고,
타부서와 타 신도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귀가 되며,
온 교회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팔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며,
봉사하는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교우들이 하느님 나라의 열매인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과 시간을 나누고,
말씀의 배움과 섬김의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향 린 교 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5월 27일 오후2시, 4층 식당

■ 목회운영위원

[당 회] 김명선, 신복희, 채운석

[제작회] 이동수

[신도회] 안정연(장여), 조재상(장남), 이정임(희여), 김진B(희남), 정경이(청여),
설두복(청남), 손정아(희청), 조남원(청신), 함슬(새청)

[부 서] 신동일(관리), 나현대(교우), 지재욱(교육), 윤영애(봉사), 윤선주(사회)
홍태영(선교), 강일국(예배), 백종수(재정)

[권사회] 이종남

[목회실] 김희현, 조은화

가. 성원, 개회 선언

나. 목회운영위원 신앙고백

※ 회의자료집 표지 참조

■ 참고: 회의진행 10대 원칙 (2010년 4월 목회운영위 수련회에서 결의)

- | | |
|----------------------|-------------------------------|
| - 발언의 독점을 금지한다. | - 안건을 잘 숙지한 후 발언한다. |
| - 발언은 짧고 명확하게 한다. | - 회의 참석 전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
| - 사회자의 의사 진행에 따른다. | - 회의의 시작/끝 시간을 지킨다. |
| -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삼간다. | - 보고는 최대한 짧게 하고, 안건토의에 집중한다. |
| - 사회자는 의견표명을 자제한다. | - 결정된 사항을 회의 종료 전 낭독하여 재확인한다. |

다. 전 회의록 낭독

※ 회의자료집 <p.15> 참조

- 회의 결과 :

- ▶ 개회 14시 05분, 16명,
- ▶ 폐회 15시 38분

의장(선교부장) 회의 성원을 이루었으므로 5월 목운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회의일정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4시에 강남향린교회 이병일 목사님 이임식을 하셔서요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시 5분인데 가급적 오늘 목운위 회의는 1시간 이내에, 3시까지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현재 안건으로는 지난회의에서 결의했던 목회운영위원장 선출 그 부분 외 별다른 안건 사전에 제시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위원장 선출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전월회의록 채택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난 회의에서 결의 하시기를 이번 회의 개시 시에 목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바로 지금 회의가 시작되면은 목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순서를 제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제가 먼저 확인을 목회운영위원들께 구하는데요. 저희 제가 내용을 정리 하다 보면 일단은 기존 목운위원장을 하였던 강일국 집사님께서 일단은 목회운영위원장 사임의 의사를 표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결의하거나 결정했던 의결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강일국 집사님의 사임을 모두 동의 하시는 지 그것을 한 번 여쭙습니다. 혹시 기존 목운위원장이신 강일국 집사님의 사임에 이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동수 근데 그걸 목운위에서 사임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사임했으면 사임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목운위에서 받는 구조가 맞는 건가요.

의장 그러면 의결이 아니더라도 저희 내에서 컨센서스를 가지고 혹시 나중에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기 전에 일단 이 지점을 먼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혹시 이게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표결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사임에 대한 부분이...

이동수 지난 번에 우리가 목운위원장을 차기에 뽑자고 이번 달에 뽑자고 한 것은 이미 컨센서스가 된 거 아닌가요.

의장 이동수 장로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목운위원장 사임을 지난 회의 결의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그럼 사임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제가 선교부장으로서 궐석 시에 2번 회의를 임시진행 했고 회의 개시 시에는 진행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목운위원장을 뽑으면 다음 회의 진행은 신임 목운위원장께서 진행하시는 게 맞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투표로 진행하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먼저 추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장 그쵸. 네 그러면은...

이동수 우리가 먼저 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런거죠. 지난번에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누가 자격이 되는건지. 그거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다 계시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담임목사님 하고 조은화 목사님은 자격이 안 된다 라든지 그걸 분명히 (웃음)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그 결정해야죠. (네, 네) 이 자리에 지난번에 강일국 집사님을 목운위원장 시킬 때, 그 자리 없었거든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되는 건지. 과거에 비춰 보면 되는 건데. 오늘 그걸 정해서 어떻게 해야 맞는 지도 알고 우리가 추천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단 생각이 들어요.

채운석 강일국 집사님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선출 당시. (네 계셨죠.) (네)

이동수 계셨어요? (예. 계셨습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여기 안 계신 분도 선출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안정연 안 계신 분 뽑았다가 또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동수 그러니까 물을 정해서 아니라면 그 분을 추천 안하면 되니까요.

의장 방금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채운석 좀 전에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계신 분을 추천해서 뽑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당사자가 이 자리에서 뽑히는 것을 거부해서 이 자리에 불참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이유로 선출되고 나서 명료하게 선출이 인정되지 못하는 과정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분들 가운데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은데요. 그 거는.

의장 방금 주신 의견대로 참석하신 위원들 가운데서 추천받아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동의하신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자격이라든지, 추천에 앞서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후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자격이 없으신 분은 두 분만 해당되시는 건가요.

설두복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 할 수 없죠.

김희현 자격 규정이 없네요.

설두복 각자가 감안하셔서 투표하실 일이지 여기서 결정하거나 그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수 모두 다 목운위원이시니까 어느 분이나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조은화 목사님 시켰을 때 조은화 목사님은 절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녜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진행하죠.

신동일 자격 규정을 특별히 두지는 않았지만 목운위를 설립한 취지를 잘 살려서, 그니까 권력분점과 그런 취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의장 그러면 자격에 대한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일단 무기명으로 해서 비밀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회운영위원회는 후보 중에 다수가 선정되는 것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을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과반) (과반으로 하는) 과반. 네. (과반이라는 말이 있나)

조은화 여러 명일 경우에는 다수표로 가야되지 않나요.

김희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출 방식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가운데서 1차 투표하고, 다수 이렇게 뽑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장로 투표처럼 그런 거 없이 바로 여기서 쓰고 나서 그냥 그 가운데서 1, 2위를 뽑아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동수 과거에는 우리가 추천 하지 않았습니까. (추천했어요.)

김진 추천을 해서 다수로 하는 게 나올 거 같습니다.

이동수 추천을 해서 비밀투표를 해서 다수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의장 네 그러면 선출 방식을 결정하겠습니다. 선출 방식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을 받아서 추천 받은 자 중에서 다수를 획득한 분을 목운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희현 1차에 한번 하는, 다수로?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

지재옥 그동안에 해 온 바에 의하면 동수가 나왔는데 그 때는 다시 투표를 하거든요.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선출되는 것으로 그동안에 했었어요. (그동안 언제)

김희현 저한테는 과반수가 (과반수가...) 과반수 없어요? (다수로) 정하면 되죠 그렇게.

의장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후보로 입후보하신 분 중에서 가장 다수인 분을 선출하는 방식. 한 표라도, 과반수랑 상관 없이. 이렇게 이번 회의에서 목회운영위원장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김희현 투표 자격 있어요? (네)

김진 투표 자격이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지재옥 목운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 그러면 후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추천해 주십시오.

이동수 먼저 본인이 할 사람을 물어보면 안 될까요.

의장 기꺼이 환영 합니다. 혹시 대의를 위해서 목운위원장을 맡아주시길 자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시

간이 지나니까) 추천을 받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신동일 정경이 집사님 추천합니다. (추천의 변)

이동수 채운석 장로를 추천합니다. (추천의 변)

의장 다른 후보 추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후보추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조금만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89년부터 목운위원장 명단을 보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시무장로님이 아니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두우 김지수 김창희 임승계 이현우 이태환 윤영수 이렇게 쪽 올라가고 있거든요. 당시에 시무장로이시면서 (예) 목운위원장 하신 적 있어요. (예) 아 그러셨군요.

윤영애(?) 그런 경우가 많았죠.

김희현 아 그런가요.

윤영애(?) 그 전에 많았죠. 아닌 게 요즘에 와서 아니었죠.

이동수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맨 처음에는 윤영수 부터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 된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구요 진행해도.

김희현 말씀드리자면 89년도부터 2년간은 김경호 목사님이 하셨구요. 그 다음에 박건영 목사님 3년간, (예) 정원진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진 아닌가보다 그렇게 하고 장로님 세대가 왔고. (예) 그러다가 이진 아닌가 보다 하고...

설두복 아니요. 그건 역사가...

안정연 아니요 그 때는 목회운영위원회가 아니었어요.

김희현 아 그 때는 그랬나요.

이동수 목회운영위원회 처음 시작한 거는 윤영수 장로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안정연 모든 선교?를 구성하고 한 건 윤영수 장로가

이동수 처음에는 이름이 아마도 목회위원회가 그랬습니다.

신동일 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격규정 이런 거는 없지만 시무장로가 목운위원장까지 맡는다는 것은 목운위를 만든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천을 하고 ...

김희현 감안해서 하고.

신동일 자격 요건은 없으니까요.

이정임 자격요건이 없다면은 시무장로가 그걸 말으면 안 된다는 그것도 말의 논리에 근거도 조금 약하지요.

설두복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기 주장인데요.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정임 그니까 그 말씀에서는 목회운영위원회를 만든 취지에 맞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설두복 아뇨. 그 취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몫이니까요. 아까 목사님이 해도 되느냐 그랬을 때 저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드렸었죠.

윤영애 제가 여기 목운위원장을 할려면 저는 적어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형편을. 돌아가는 거라든지. 구석구석을 좀 알아서 해야 회의의 진행도 되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리더쉽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좋은 분을 뽑았지만 그 분이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구석구석의 상황을 잘 모르는데 그 분한테 위원장을 시켜놓고 여기서 너무 막 이케 이야기하는 방식이 너무 힘들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정도면 여기에서 오만가지 일을 다 파악하고 계실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큰 뭐가 있나요? 없어요. 크게 뭐 권력을 휘두른다든지 이름을 내세운다든지 이런 거 없는 거 같아요 여기서. 여기 목운위원장에 장로님이 되시는 게 더 오히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 지금 발언하는 부분이 추천자에 대해서 발언도 자유롭게 하는 건가요.

김희현 제가 실수 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우리가 표로 행사하면 되는 거니까.

김진 그 게 지금 투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발언을 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희현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목운위원들이 다른 안을 내더라도 대화를 해나가면서 같은 이해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거 같아서, 너무 민감하게 하면 곤란할 거 ...

김진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장로님이 목운위원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각각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다른 데 없는 목운위를 만든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특히 시무장로님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자기의 역할과 의지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목운위원장까지도 시무장로가 한다면 그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운위원인데 동일한 의견, 같은 사람이 여러 군데서 동일한 의견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특히나 목운위원장은 시무장로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동수 거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운위원장은 목운위원들을 아우러서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지 목운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운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은 각각의 다양성 있는 경험이 많은 목운위원 혹은 경험이 적은 목운위원 각각 부서별 이런 것들 다 아우러서 해야 될 말인지 수위를 조절하거나 회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목운위원장 개인의 생각을 가미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운위원들의 이야기를 잘 화합을 통해서 만들어 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운위원장의 역할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시무장로라고 해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한 번 거의 6개월 가까이 5개월 동안 목운위원장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기적 성격도 있으니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사님이 새롭게 자리를 빨리 잡으셔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를 잘 아우를 수 있는 아 그 분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구요. 우리 목운위원들이 전부 다 우리는 목운위원장이 가는데로 좇아갈 거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은 각각의 생각들을 다 우리가 의견수렴해서 진행한다면은 현재 시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정연 종료하고 투표할 것을 동의합니다. (투표하시죠.) (네)

의장 토론 종결 제안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채운석 혹시 추천받으신 분의 발언...

의장 네 후보추천의 과정과 목운위원장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투표에 앞서서 후보가 되신 두 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후보 신상 발언 (채운석, 정경이 순) -

의장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참석자는 18명입니다. 동수가 나오면 재투표를 할 거고요. 10표 이상 획득하시는 분께서 목운위원장을, 아 이번 목운위원장의 임기는 기존 목운위원장 궐석이기 때문에 19년 12월까지, 예 같이 주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두복 잠시만요. 득표수에 대해서 10명 이상이 아니라 아까 다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수이지 10명 이상인 건 아니죠.

의장 아 예.

- 투표 진행 -

의장 개표위원 한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네, 지재욱 집사님. 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재석위원 18명, 투표 18명, 정경이 10표, 채운석 6표, 기권 1표로 정경이 위원님이 목운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정경이 위원을 목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다.

의장(정경이) 미처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회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임기까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최선을 다 할 거고요. 어떤 직책을 맡으면 어쨌든 기쁘게 하는 편이거든요. 직책을 맡으면 신나고 즐겁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제 임기동안에는 모든 일을 신나게 해 보겠습니다. 부족해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팎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족하다 보다는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목운위원장 고민을 좀 전에 해보면서 우리 목운위원들이 하기 나름일 거란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안전이 없는데, 안전이 없으려면 한없이 없을 수 있고, 안전이 많으려면 무수히 많을 수 있는 게 목운원데, 그런 면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설두복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목운위에서 4월 목운위 안전 1.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존 정관연구소위원회에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 설명을 다음 달에 듣고 다음 달에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안과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전으로 채택이 안 돼서요. 오늘 이 안전을 채택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게 3월인지 2월인지 좀 헷갈리는데, 제 기억으로는 3월 인데요.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안전도 작성해서 제출했었던 목회운영위원회 회의 세부 시행규칙 작성 관련해서 다음에 논의하겠다 라고 그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달은 아시는 사정으로 지나왔고, 계속 이전에 회의에서 결의를 했거나 약속을 했던 부분을 자꾸 까먹으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상기 시켜 드립니다. 목회운영위원회 세부시행규칙 작성 관련해서도 언제 어떤 일정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일정이라도 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저도 오늘 안전 보고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목운위를 몇 번 안 왔지만 ... 저도 지난 4월 목운위원회의록 보면서 이번 달에 안전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전이 안 올라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전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애매한 게 있었지만 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아까 설두복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관문제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변화됐고 이런 상황에서 정관이라든가 내용에 어떤 필요한 시점이라서 이 부분 지난번에 보고를 따로 하신 다음에 내용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정관 소위원회가 뭘 어디까지 진행하고 넘기기로 했었는지 정리가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참석했던 분이 채운석 장로님이 계신 분 중에 유일하신데 (같이 했습니다. 설두복 집사님) 아 그러시구나. 그게 사전에 사실은 어느정도가 지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한데 공유가 되는 자료가 좀 있어서 올 해나 이후에 정관소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안전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설두복 집사님이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설두복 지난 회의에 제가 제안서를 제출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의장 설두복 집사님 제안하신 거는 안전채택을 하고 좀 앓다 안전처리 할 때 얘기할까요. 오늘 3시 안에 회의를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좀 긴박하긴 한데요. 좀 앓다 안전 채택할 때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일단 급하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4월 회의록.

서기(홍태영) (4월 회의록 주요 내용을 낭독하다.)

의장 회의록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4월 회의록은 원안대로 채택하겠습니다.

1. 보고

1) 출석/헌금 보고

(단위: 명, 천원)

날짜	예배 출석 인원							헌금 합계	들녘교회 농산물/ 국악찬송	특별헌금	목적 헌금
	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	교사	성인	합계				
4/22	4	4	21	4	20	210	263	9,884,450		남북나눔 103	성서구입 2,570
4/29	6	5	12	10	20	216	269	11,902,000		남북나눔 305	성서구입 957
5/6	3	5	13	14	20	230	285	14,087,000		남북나눔 285	선교센터 1,000 성서구입 880
5/13	3	1	22	13	20	328	387	11,153,000		남북나눔 443	성서구입 2,956
5/20	4	3	16	16	20	206	265	8,100,123		남북나눔 223	성서구입 832

2) 2018년 6월 목회일정

월	주 일	예 배 력	주 일	주 간
6	3	둘째 주일	환경주일 정기제직회 6.10민중항쟁기념주일	6/6 현충일
	10	셋째 주일	교육부 간담회 새교우강좌2 당회	6/13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주관:전체여신도회/사회부)
	17	넷째 주일	새교우강좌3	
	24	다섯째 주일	들녘-향린 자매결연24주년 주일 남북화해주일 목회운영위원회 새교우강좌4	6/26 다날 6월 모임

3) 교우 사항

- 새교우 : 김다솜(청신), 김정현B(새청)

4) 기관 보고

4)-1. 부서

○ 교육부

1. 5월 주요 실시사항

구 분	내 용	
교육부	5/6 어린이 주일 - 각 신도회 후원 5/13 아버지 주일 - 청소년부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대상-기도 해주는 어른) 교역자 부장단 간담회 연기- 6/10 오후1:30 2층 어린이부실 5/27 반별 사랑방(어린이부), 체육대회(아주대 텔레토비동산 -청소년부)	
유아/ 유치부	유아부 <예배> 6일-이성환목사님 하늘 뜻 펴기 13일-아빠가 읽어주는 동화 20일-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27일-담임목사님 하늘 뜻 펴기 <교육> 6일-어린이주일 세레모니 13일-카네이션 만들기 20일-주기도문 가렌더 만들기 27일-새 찬양울동 배우기 <일정및 요청> * 5/27 오후1시 엄마책모임	유치부 5월 일정 - 교육주제 : 사랑 - 예배 인도 : 김현정 선생님 - 13일 김정원 목사님 하늘뜻펴기 - 13일 교육부 간담회 연기 - 27일 김현정 선생님의 교사하늘뜻펴기 - 27일 생일 잔치(24일:임은희 선생님) - 27일 엄마 책모임 예정 “일일일책” 1시 /총무 : 조현이 - 성인예배 참석 : 6일-황은진, 20일-임은희 - 예배 1주 :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해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2주 : 나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3주 : 친구야 사랑해 4주 : 메추라기와 만나 그리고 십계명
어린이부	6일 : 어린이주일 - 남산산책, 외식(중식), 청여+청남의 선물 13일 : 일반예배 20일 : 생일축하 27일 : 반별사랑방(오전 10시 30분 교회집결, 오후 2시 30분 교회도착) - 1+2학년 남산 케이블카/ 3+4학년 박물관은 살아있다(종로)/ 5+6학년 방탈출 카페, 라쿤카페(홍대)	
청소년부	<예배> 1주 하나님은 사랑이다(요한일서 4:7-21) 2주 Restart(마가복음 1:9-15) 3주 영원한 평화(이사야서 2:1-5) 4주 예수님의 사역(마가복음 2:1-12) <활동> 1주 분반활동(친교), 생일 축하, 임원 월례회(안건- 5월의 행사준비, 들살이, 낮꿈) 2주 아버지주일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낮꿈 준비위 시작 3주 5.18 기억예배, 낮꿈 전체회의 4주 체육대회, 임원월례회(안건- 6월의 행사준비, 들살이, 낮꿈 진행상황 파악)	

2. 6월 주요 예정

구 분	내 용	
교육부	6/17 성 평등 좌담회 패널 참여(청소년부) 6/24 서울노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여름들살이 기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부 바자회	
유아/ 유치부	유아부	유치부
	<p><예배> 3일-선생님이 읽어주는 동화 10일-성서이야기1 17일-성서이야기2 24일-김정원목사님 하늘 뜻 펴기</p> <p><교육> 3일-선생님활동 10일-성서활동1 17일-성서활동2 24일-새 찬양 율동 배우기</p>	<p><일정> - 교육주제 : 제1성서 이야기 - 예배 인도 : 임은희 선생님 - 10일 교육부 간담회 - 17일 이성환 목사님 하늘뜻펴기 - 24일 생일 잔치(28일:김달, 김별 어린이) - 24일 임은희 선생님의 교사하늘뜻펴기 - 24일 서울노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 성인예배 참석 : 3일-김현정,10일-황은진</p> <p><예배> 1주 :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2주 : 드디어 도착 했어요 3주 : 드보라 이야기 4주 : 하느님이 기드온을 보내주셨어요</p>
어린이부	3일 : 일반예배 10일 : 평화기행 예정(취소될 수도 있음) 17일 : 일반예배 24일 : 일반예배, 교사강습회 참여예정(공덕교회)	
청소년부	1주 생일축하, 환경주일 활동 2주 분반활동(신5:12-15 시81:1-10 고후4:5-12 막2:23-3:6) 3주 성소수자와 함께 하는 예배(3층 본당 예배 연합), 성평등 좌담회 패널 참석. 4주 분반활동(삼상15:34-16:13 시20 고후5:6-10, 막4.26-34), 바자회	

3. 청소년부 여름 들살이(제주도)에 대한 교육부서의 요청

청소년부의 여름 들살이(2018.07.26~29, 제주) 관련 일부 교인들의 부정적 시각을 일소시키고, 전 교인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들살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려점>

- 1)장소의 적절성- 제주도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들살이 참여도 감소
- 2) 후원에 대한 부담감 - 비용증대로 인한 교인들의 후원에 대한 부담감

<장점>

- 1)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수성의 장점 극대화
 - 미리 들살이를 위해 3박 4일이란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함(준비된 들살이)
 - 일상과 단절됨으로써 깊이 있는 영성훈련이 가능함(여행의 장점)
 - 영성 프로그램을 통한 치유의 시간(푸른이와 어른,교사 관계 회복)
- 2) 푸른이들의 자치적 활동
 - 6/24 여름 들살이 기금마련을 위한 '푸른이 바자회'

이번 청소년부 여름 들살이 제주도행이 참여율과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향린의 주역인 푸른이들이 깊이 있는 영성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주시고 기도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향린교우 신앙실천 고백문-향린교인 신앙실천 다짐(60주년)

9.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청소년들의 심리와 교육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10.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 나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청소년들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재정 확보, 교사 봉사, 학부모 활동 등을 통해 교회교육을 지원한다.

(2013년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향린교회 교인 일동)

의장 그림 각 부 보고를 하세요.

조은화 시간이 좀 넉넉지 않아서 급한 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의장 네,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꼭 보고가 필요한 것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재욱 교육부에서 특별히 제가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페이지에 교육부서는 원래 연간 계획대로 지금 유아부 부터 청소년부까지 진행되어져 있고요. 저희 지금 제가 속해 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담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교육부장 이예요. 그래서 되게 빡차고 힘든데, 오늘 또 체육대회가 아주대 수원에서 있는데 거기 들렀다가 여기 왔거든요. 근데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세 번째 요청안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5 페이지에. 청소년부 여름 들살이 제주도에 대한 교육부서에 요청안이 여기 기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부 여름들살이가 7월 26일부터 29일 3박 4일 제주,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면서 일부 교인들의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교인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서 들살이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점들이 무엇인지는 말씀해 주셔서 적어 보았습니다. 제주도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린수양관이나 가까이 근거리에서 진행이 되면 잠깐 잠깐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우려점들을 이야기 해 주셨고요. 그리고 비용이 꽤 많이 들 것 같다 제주도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교인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럼 저희가 제주도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제주도로 가면 어떤 점이 좋기 때문에 가느냐를 여기다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제주도를 지역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이나 기존의 아이들이 시간을 들살이와 학원이나 이런 거를 동등시 놓고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미리 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들살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그래서 준비된 들살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구요. 그리고 거기가 낯선 것이고 또 전혀 단절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영성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만난 하느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을 주고 저희가 싶은 마음이 간절하구요. 그리고 저희 안에 교육자도 아이들의 영성훈련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차곡차곡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이 교회 인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유 하는 시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전에 이동수 장로님이, 제주도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 뭐 화분이나 아이들이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후원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아이들이 바자회를 열어서 기금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청소년부 들살이 제주도 여행이 참여율과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향린의 주역인 푸른이들이 영성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60주년 신앙실천 다짐을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일부 내용 삭제)

이동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재옥 위원 발언 일부내용 회의록 삭제 의견) 서로 협조해서 잘 진행하는 내용으로 잘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지재옥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채운석 청소년들이 지난 해 일로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제직회장님 지적대로 청소년들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아픔을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

- 이재옥 위원의 해당 발언을 삭제하기로 하다.-

조재상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네) 제주에서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 큰 거는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대강 그걸 간단히라도 말씀해 주시면은.

지재옥 저희가 1,200이 예산에 잡혀 있고요. 교회 들살이 예산은 300입니다.

조재상 그럼 900 정도가 부족하니까 그걸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김희현 900을 다 하는 건 아니죠?

지재옥 900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걸 갖다) 그리고 그건 최대치고요. 제가 지금 ...

조재상 이 게 다른 거 하고 달라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아우트라인이 서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김희현 아이들이 비용 부담해 가지고 ... 비행기표라든지 ...

지재옥 그렇죠, 예. 아이들이 비용, 교인들이 부담 해 주는 거는 400 정도입니다. 개인 부담이.

조재상 아, 아이들은 대략 1인당 부담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재옥 아이들은 1인당 12만 원입니다.

조재상 아 12만원 정도.

지재옥 그래서 후원은 400 정도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조재상 아 400 정도 예상한다.

지재옥 4~500 정도.

조재상 그게 인제요.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운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면 각 신도회 같은데도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각 신도회 속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이제 제가 보건데는 일단은 목운위에서 어느 정도 찬성하면 찬성한다든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실 어떤 면에서 돈 문제는 또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취지가 그렇게 좋으면, 또 작년에도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가는 게 좋겠죠. 그럼 꼭 이제 목운위에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서, 각 신도회 협조도 구하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팬찮을 것 같은데.

채운석 제가 아침에 청소년 부장하고 잠깐, 청소년 부장이 오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체육대회가 있어서. 사실 교육부장이 참석해 계시지만 청소년 부장이 부연설명도 하고 이랬으면 더 나았을텐데요. 청소년 부장 이야기는 이겁니다. 전체 예산이 1,200정도 소요될 거 같다. 그리고 그중에 교회 애당초 수련회 예산이 300 정도 있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비용을 내는 게 약 모아진 게 3~400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400에서 500정도가 부족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구요. 그리고 취지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겁니다. 전년도 청소년들이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는 청소년들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트고 대화하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고. 그리고 지금 전년도 그 일 때문에 청소년부 교사들이 전체가 그만두셨습니다. 새로운 교사

진용으로 교사진용들이 짜져 있는데, 새로운 교사들이 되게 열심히 아이들 아픔을 같이 감당하고 풀어 볼 욕구들을 의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그럴 기회가 있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진행돼 있는 것은, 표는 이미 구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제주도라는 것이 티켓팅을 빨리 하지 않으면 가격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티켓팅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운위원들께서 그런 사정들을 좀 고려해서 좋게 이해해 주시면, 장로님 말씀대로 신도회들이 고민 좀 하고 나머지 관심 있는 교우들이 고민을 좀 하면 충분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아이들에게 좀 다시 마음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선주 아이들이 몇 퍼센트가 참여하겠다고 ...

지재옥 저희가 원래 예상은 20명 정도 했는데, 지금 13명 예매했습니다.

채운석 아니 17명 됐다고 그러던데.

지재옥 아 ...

윤선주 전체 청소년부 아이들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이번 들살이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

지재옥 작년에는 25명, 겨울들살이에 참석을 했어요. 그 게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니까 그 중에서 25이었는데 이번에 17명 이니까.

윤선주 제 얘기는 청소년부에 출석률이 ...

지재옥 출석률이 저희가 17 명 정도. 17에서 15명이 출석합니다.

채운석 출석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윤선주 그러면 그 보통 들살이를 할 적에 제가 알기로는 장소를 정할 때에 그들 내부에서 굉장히 의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부에 대해서 제주도라는 이 장소가 합의된 장소인지.

지재옥 임원들이 선정을 한 거고요.

윤선주 거기에 가겠다고 17명 정도가 가겠다고 한 거죠.

지재옥 이미 예매를 마친 상태입니다.

의장 부족한 예산을 목운위 안건으로 처리할 순 없을 거 같고요. 제가 볼 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차피 신도회나 부서를 대표하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우선 신도회에서 개별 논의를 좀 책임감 있게 해 주셔서 우선은 부서나 신도회별로 좀 자발적으로 후원이 되는 걸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재옥 제가 좀 격앙되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부정적인 그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켜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뺄어 내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을. 그거 당연한 거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화를 부정적인 것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장이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셔서 신도회나 이런데 가셔서 또 다른데 가셔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조재상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각 신도회 가서 얘기를 해 달라 그래도 우리가 목운위 자체에서 우리가 논의를 충분히 하면서 어떤 결과, 말하면 만들어졌다고 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면 이게 하나 마나예요 사실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티켓팅까지 다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걸 우리가 사실은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또 어른이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이고. 그런데 우리 목운위에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의견일치를 보면 우리 목운위 이름으로 지원하겠다고 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우리도 예를 들면 각신도회 가가지고 저라도 장년남신도회에 가면, 이렇게 해서 우리 목운위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년남신도회에서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지 그냥 가서 논의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거죠. 결의가 필요해요.

지재옥 저희가 6월 24일에 들살이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아니 근데)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이거를 신도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

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회장께서 조장로님 말씀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키는 결의를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장 사실은 이것을 안전으로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장로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러면 사실은 취지가 잘 공유가 되지는 않았던 상황이어서 저희도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예산적인 부분이나 후원이나 공감의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것을 안전으로 받아서 얘기를 해 보는 걸로 해 볼까요? 안전 처리를 할까요?

조재상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왜냐면 일률적인 부분이 단순한 후원가지고는 (그렇죠.) ...

윤선주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 비용의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장소에 원거리 장소에 문제도 아닌 거 같아요. 가장 지금 내면에 있는 ... 말씀하신 대로 결의가 되어지면 교육부에서 일하시는 데 조금 힘을 받아서 일할 수 있을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도 거기에는 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3시라는 시간 때문에 대화를 신경 썼는데 그러면 이것을 차분히 논의 하는 걸로 해 볼까요.

김희현 저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만큼씩 합시다 하기는 그게 어려우니까 장로님 말씀대로 안전이라기보다는 회의록에 교육부에 사정을 듣고 구체화 해서 목운위에서는 적극협력해서 지원하기로 하다 정도만 남기더라도 각 부서에서 이어 받기가 쉽지 않겠나.

의장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도 내용 공유를 좀 돼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도회 돌아 갈텐데, 사실 아까 말씀들은 거 같고 안된 거 같아서 사실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그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희현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의장 더 필요하지는 않지만 교육부한테 ... 심리적인 어떤 지지와 지원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방법 쉽지 않은 ... 어렵게 하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부서이나 월례회에 들어가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지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두복 어찌 됐든 현재 보고 이니까요. 보고가 마치고 이것을 안전으로 받아서...

의장 안전까지 아니에요.

○ 봉사부

- ▶ 공동식사 준비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맛나게 드셔주시는 교우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교우부

- ▶ 4월 목운위 후 활동 보고

1. 4월 29일 ; 교우부 행사 - 신도회 매칭 프로그램 소통의 날 행사 진행
 - 청년남신도회 & 장년여신도회 만남
 - 청년여신도회 & 희년여신도회 만남
2. 5월 특이사항 없음

- ▶ 6월 활동 계획

1. 6월 10일 ; 새교우 교육때 교우부 소개 예정
2. 7월 중 예정인 교우부 행사 준비 - 전체 지역모임 회의

○ 사회부

- ▶ 5월 목운위 사회부 활동

4월 29일 : 주일오후 5시 강남향린 강제철거 규탄 연합기도회

- 5월 3일 : 목요촛불기도회 - 장위동
- 5월 10일 : 목요촛불기도회 - 강남향린
- 5월 14일 : 교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
- 5월 17일 : 목요촛불기도회 - 강남향린
- 5월 24일 : 목요촛불도 기도회 - 강남향린
- 5월 25일 : 북미회담중지 트럼프 규탄기자회견
- 5월 25일 : 북미회담 일방취소 미국규탄 긴급촛불집회
- 5월 25일 : 사회선교정책협의회

※ 6.9. 평화촛불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 일시 : 6월 9일 오후 7시
- 장소 : 광화문

윤선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6월 9일날 평화촛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린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거 같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안내드리고, 그다음 6월 13일 수요일 날, 저희 향린의 전체 여신도 하고 그 다음 길목, 사회부가 함께 하는 수요집회, 거리기도회를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협조해 주시고 지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6월 13일 날 교회에서 하는 거리기도회 대신에 난 12시에 수요집회로.

○ 선교부

1. 활동 보고

- ▶ 사회선교부정책협의회 (5월 25일)
- ▶ 선교부 학습모임 : "죄와 구원에 관한 과정 신학적 고찰" (5월 13일)
"사건의 철학과 과정 범재신론" (5월 27일)
- ▶ 개편 홈페이지 오픈 (5월 13일) 및 기능 보완(계속)

<미디어 선교위원회>

- ▶ 현장기도회 중계 및 동영상 업로드(계속)

<생명환경위원회>

- ▶ 생명환경선교의 길 기획회의 (5월 20일)

1. 환경주일 (6월 3일)
2. 들녘교회 농촌활동 (6월 마지막주, 7월 첫째주)
 - 모내기 지원 및 영상 촬영, 참여 홍보 활용
 - 다양한 세대의 참여 및 세부 프로그램 운영
 - 지속적인 들녘 소식의 전달을 통한 관심 유지
3. 생태기행 (9월 중)
 - 환경현안 대응 운동 전개 (탈핵 운동 현장방문 등)
 - 생명평화 현장기도회 및 순례길 탐방
4. 아나바다 장터 (10월 중)
 - 가을·겨울 의류 바자회를 통한 절약 운동
 - 양심수 내복 마련 지원금 활용
5. 기독교환경운동연합과의 연대 사업 모색
 - 인적 자원 교류를 통한 적극적인 연대 활동 추진
 - 녹색교회 십계명, 교회를 푸르게 사업 등 활동 공유

▶ 들녘교회 농산물 판매(계속)

2. 6월 계획

- ▶ 환경주일(6월 3일) 프로그램 운영
- ▶ 들녘교회 농촌활동 계획 수립 및 홍보 (농활 일정 : 6월 마지막주 혹은 7월 첫째주)
- ▶ 선교부 학습모임 (계속)
- ▶ 홈페이지 콘텐츠 구성 및 자료 이관을 위한 모임 구성 및 활동

의장 그럼 다른 부서 보고 있습니까.

홍태영 선교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교부 보고 7 페이지 참조 해 주시는데, 일단 지면에 있는내용보다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난 5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새 홈페이지를 오픈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생각했던 일정보다 한 일주 이상 조금 지연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사용자 테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오픈하다 보니까 기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선교부에서 해 왔던 지난 1년간에 자료와 중심되는 콘텐츠를 새로 구성해서 새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첫 번째를 목표로 삼으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추후도 계속 다음 달 이후에도 계속 진행 될 것이지만 지금 가장 급선무인 것은 홈페이지에서 갖고 있는 오류들을 찾아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수정 보완하는 것을 제작 해주신 제작사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류 기능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예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목회운영위 자료와 회의록을 오늘 새 홈페이지 올리려고 했더니 목회운영위원회 게시판에 올라가지 않는 기능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접근이 가능한 선교부 게시판에 먼저 올렸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일단은 구 홈페이지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소를 넣고 가서 구홈페이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지금까지 18년 자료에 올렸던 것에 이어서 5월 자료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기능들을 먼저 추려내고 그 것들에 대해서 보완작업과 콘텐츠에 대한 보완작업 등을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미루지 않고 6월 중에는 최대한 많은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의견있으시면 지금 주시면 보완 작업하는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보니까 교회 홈페이지 개편 된 게 많이 공유가 안 돼 있어서 각 신도회에 가셔서 많이 들어가셔서 정말 오류들을 많이 올려 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홍태영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도 그렇지만 제가 쪽 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다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게시판도 있고 여러가지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이틀테면 신도회 공간은 각 신도회에서 옮겨야 자료를 추려 가지고 직접 권한을 받아서 올리거나 이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주시면면 그 내용을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2017년부터 2018년 언제까지 싹 옮겨 이런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을 한다든지 그 전에 자료라도 이런 자료들은 꼭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청하면 그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관리부

- ▶ 5/17 교회 본당의 예향무대 하부에 누수 발생:누수 원인 점검 및 대책수립(첨부 참조)
- ▶ 5/26 향린수양관 정리 및 화단가꾸기: 소모임'가보세'회원 8명 자원봉사

의장 다른 부서 보고 없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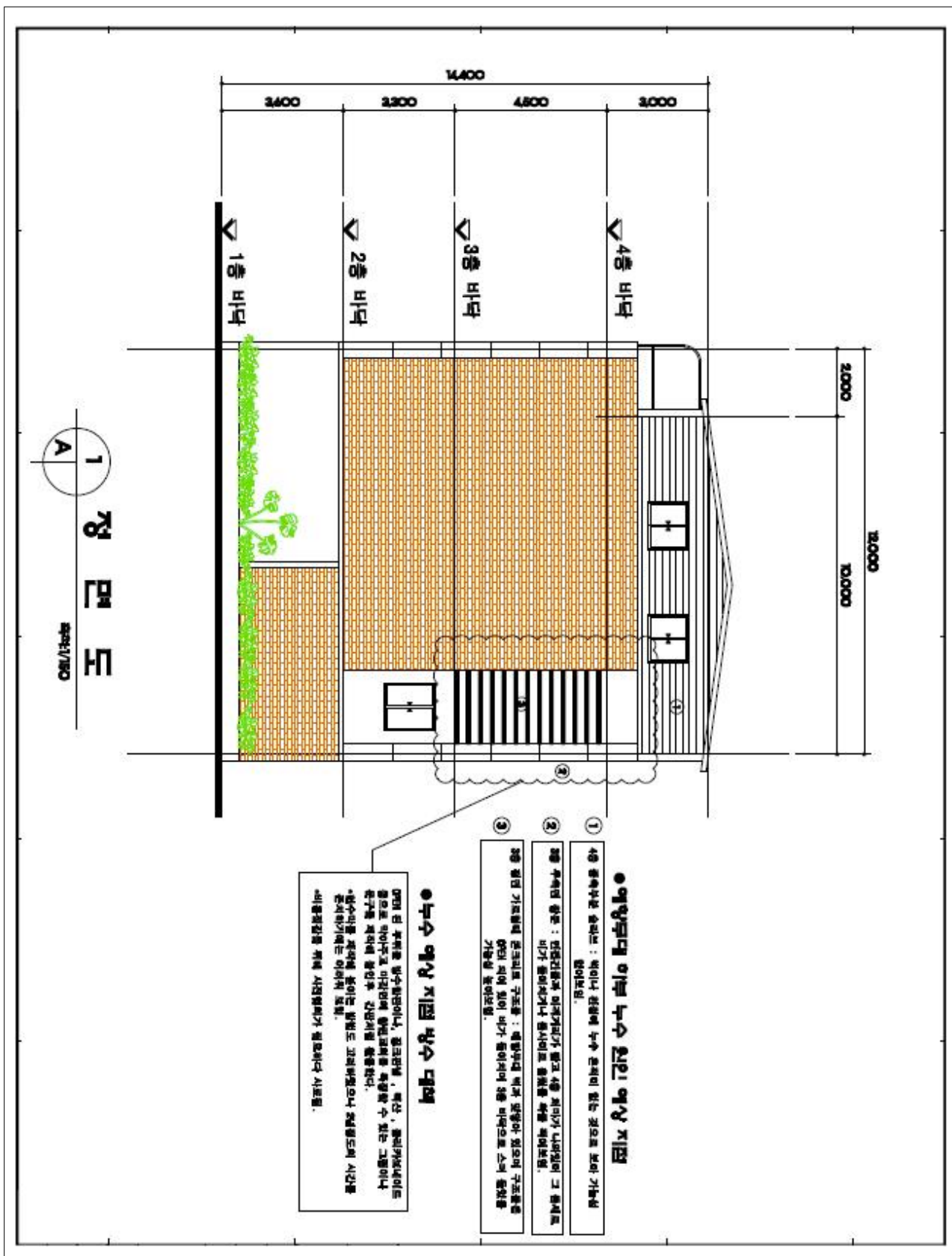
채운석 혹시 관리부, 도면까지 있는데 이거 뭘니까.

관리부장(신동일) 5월 17일 날 장마철도 아닌데 집중호우가 단위당 기록을 세웠다 그러더라구요. 우리 교회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3층 본당 예향무대 쪽에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 게 이 도면입니다.

의장 원인파악이 다 된 건가요.

신동일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고요. 옥상에 물 배수구 막혀 있던 부분들을 있을까 해서 그거는 청소를 다 했고. 도면에 보충하고 그 사이에 비가 썰 가능성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구조물을 새우든가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 첨부 : 방수대책



○ 재정부

- ▶ 특이사항 없음
- ▶ 6월 목운위 회의 시 목운위 산하 "교회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연구위원회"설치에 대한 자료 제출 예정

○ 예배부

- ▶ 특이사항 없음

4)-2 신도회

○ 새날청년회

- 5/6 새청·청신 그 날, 바다 영화관람
- 5/11 새청 봄 들살이
- 5/13 김정현 친구가 진행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 강의
- 5/26 섬돌향린 청년들과의 친교 모임

- 4~5월에는 새청과 청신이 마음을 모아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했습니다.
- 또한 새청모임 때 '폭력', '성소수자' 등의 주제로 새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 새로운 친구들이 꾸준히 새청을 방문했고, 그 중 몇 명은 정착하게 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 청년신도회

- 5월 1째주 - 그날, 바다 관람
- 5월 2째주 - 재개발관련 공동의회 참여 및 청신 월례회
- 5월 3째주 - 여의도 한강 친목 모임
- 5월 4째주 - 페미니즘 성서 모임.

- ▶ 6월 청년신도회 회장 : 이야호 교우

○ 희년청년회

1. 정기월례회와 친교의 시간(5월 13일)

○ 청년남신도회

[월별 정기회의]

- 4/29 장녀와의 대화 진행
- 4/29 남북대화 환영 떡 돌리기 및 스티커붙이기 행사 진행
- 5/13 신도회월례회 : 새청 지원 결의
- 일요일 식당 설거지 봉사(계속)

○ 청년여신도회

1. 5월 10일 2지구 연합예배 : 청여에서 헌금위원으로 참여.
2. 5월 어린이날 선물(개별 스탬프 이름도장 및 과자 꾸러미),
남북 판문점 회담 기념 청남행사 지원
3. 지재옥집사 찾집 '봄' 개업예배 참가
4. 청여 소모임
 - 1) 책읽기 모임 : 5월 20일 '낮선곳에서 나를 만나다'를 읽고 토론
 - 2) 노는 언니 모임: 5월 19일 영화 '버닝' 관람 후 토론
 - 3) 해금모임: 6월 24일 향린 국악학교 발표회에 해금연주로 참가
5. 일본군성노예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2018.6.13.(수)) 참여 독려(사회 : 염윤희 교우)
6. 5월 13일 교우 유호명 선생님 팔순잔치 참석

○ 희년남신도회

1. 희남수련회 성공적으로 마침 :
 - 장소 : 원주
 - 일정 : 4/28 ~ 4/29
 - 참석자 : 희남 회원 7명 외 최병규 교우 부부 (최병규 집사 심방)
2. 희남 여름수련회
 - 가까운 곳 : 향린동산
3. 교우 동정 : 서정호 집사
 - 다리염증 45일 간 입원
 - 퇴원 후 봉사활동 중
4. 푸른이 여름들살이 행사 일정 공유

○ 희년여신도회

- ▶ 보고사항 없음

○ 장년여신도회

- ▶ 보고사항 없음

○ 장년남신도회

- ▶ 보고사항 없음

○ 권사회

1. 5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새교우 강좌 안내

4) 목회실 보고

- 5월 주요 실시사항

1. 회의

- 1) 교회 갈등해소를 위한 연석회의: 4월29일(일), 오후3시30분, 1층 향우실
- 2) 각 부/위원회: 5월6일(일), 예배직후, 정해진 장소에서
- 3) 임시공동의회: 5월13일(일), 예배직후, 3층 예배실(안건: 향린교회 토지 및 건물 매각 안
- 4) 신도회 월례회: 5월13일(일), 임시공동의회직후, 정해진 장소에서
- 5) 당회: 5월20일(일), 오후4시, 목회실2
- 6) 향린공동체협의회 정기회: 5월20일(일), 오후4시, 강남향린교회 앞 기도처
- 7) 목회운영위원회: 5월27일(일), 오후2시, 4층 식당

2. 예배/기도회

- 1) 수요기도회: 5월2일(수), 저녁7시30분, 2층 어린이부실(주관: 청여)
- 2) 어린이주일 예배: 예배 중 어린이세례식(고승현-남원미/고대연 집사), 황주혁-주지형/황영준 집사)
- 3) 5.18민중항쟁기념주일/어버이주일/창립65주년 기념주일: 5월13일(일),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청소년부), 초청 하늘뜻펴기(이병일 목사), 감사찬양(예향), 공동관심사 중 조계연 집사 성가대 지휘 근속20주년 감사패 증정, 새 홈페이지 오픈
- 4) 교회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 5월14일(월), 저녁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공동주최: 향린공동체 성정의위원회)
- 5) 서울노회주관 평화통일기도회: 5월21일(월), 저녁7시, 기독교회관2층 조예홀
- 6) 성령강림주일: 5월20일(일), 예배 중 성찬식

3. 각종 활동 및 기타

- 1) 성가대 수련회: 4월28일(토)~29일(일), 향린수양관
- 2) 유아/유치부 봄 사랑방: 4월29일(일), 어린이대공원(유아부)/남산골한옥마을(유치부)
- 3) 어린이부 남산나들이: 5월6일(일), 남산일대
- 4) 성평등교육: “성인지감수성함양”(5월6일, 2층 청신방), “성폭력발생시 대처방안과 매뉴얼 작성”(5월20일, 2층 어린이부실), 오후1시30분, 강사(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김수정 선생), 대상(당회/교역자/성평등위원회)
- 5) 새청 봄들살이: 5월11일(금)~12일(토), 향린수양관
- 6) 사회·선교부 정책협의회: 5월25일(금), 저녁8시, 힙터
(2018년 사회-선교부 사업점검, 향후 사업계획 및 중장기 정책논의)
- 7) 어린이부 반별 사랑방: 5월27일(일), 각 반별 정해진 장소에서
- 8) 청소년부 체육대회: 5월27일(일), 오전11시30분, 아주대학교 잔디공원
- 9) 유아/유치부 엄마책읽기 모임: 5월27일(일), 오후1시, 아띠제
- 10) 2018년 상반기 새교우강좌 1강: 5월27일(일), 오후1시30분, 2층 어린이부실,
새교우들의 수다(인도: 유혜연 집사)/신도회별 만남
- 11) 평화소모임: 5월27일(일), 오후1시30분, 1층 향우실,
“정상회담과 평화체제 및 구체적 군축방안”(강사: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12) 강남향린교회 이병일 목사 이임식: 5월27일(일), 오후4시, 강남향린교회 앞 기도처
- 13) 민중의 눈으로 본 제1성서 종강: 권남근, 김대성, 백종수, 서형식, 엄윤희, 유호명, 이봉구, 최명천, 홍태영 이상 9명 수료

- 6월 목회일정 안내

1. 회의

- 1) 정기제직회: 6월3일(일), 예배직후, 3층 예배실
- 2) 신도회 월례회: 6월10일(일), 예배직후, 정해진 장소에서
- 3) 당회: 6월10일(일), 모든 일정마친 후, 목회실2
- 4) 목회운영위원회: 6월24일(일), 오후2시, 4층 식당

2. 예배/기도회

- 1) 환경주일: 6월3일(일), '차 없는 날'
- 2) 차별과 혐오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주일: 6월17일(일), 예배 중 공동기도
- 3) 민족화해주일: 6월24일(일), 예배 중 공동기도/남북나눔헌금약정

3. 각종 활동 및 기타

- 1) 다날모임: 5월29일(화), 광릉수목원(교회출발: 오전10시30분)
- 2) 교육부 교역자 워크숍 : 6월9일(토), 오전10시, 목회실3
- 3) 교육부 간담회: 6월10일(일), 오후1시30분, 2층 어린이부실
- 4) 상반기 새교우 강좌: 오후1시30분, 2층 어린이부실
 - 2강: 6월10일(일), "향린의 역사와 선교"(인도: 홍여진 장로), 길목협동조합 및 부서소개 (관리부/교우부)
 - 3강: 6월17일(일), "공동체 감수성 워크숍"(성평등 좌담회 참여, 성평등위원회)
 - 4강: 6월24일(일), "향린의 신앙고백"(인도: 김지수 집사, 부서소개(사회부/선교부))
- 5)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6월13일(수), 정오, 일본대사관 앞 (주관: 전체여신도회/사회부, 특별연주: 예향, 수요평화거리기도회 대체)
- 6) 문향, 길목에서 연극하다. "항성으로 간 심청(작 오낙영, 각색/연출 송정바우)" : 6월16일(토), 3층 예배실(1회:오후1시30분, 2회:오후5시30분)
- 7) 성평등 좌담회: 6월17일(일), 오후1시30분, 장소 추후 공지(주관: 성평등위원회)
- 8) 평화소모임: 6월24일(일), 오후1시30분, 1층 향우실
- 9) 6월 다날 모임: 6월26일(화), 오전10시30분, 1층 향우실
- 10) 6월 교우 친교의 날: 3/10일(일)

▶ 전파 사항 : 없음

4)-4 당회

- 1) 교회매각 약정금 관리에 관한 건
정기예금으로 전환하고 통장과 도장은 대여금고에 보관하기로 하다.
- 2) 살림이 빌딩 건물 대표자 명의 변경 건
본 교회 명의 부동산인 살림이 빌딩의 대표자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 향린교회 당회장인 김희헌목사를 대표자로 선임 가결하다.

3) 이태환 장로 건

재개발 대책위 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당회의 책임을 깊이 느끼며 당회의 사과와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다. 6월 당회 전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30일(수) 19시30분 임시당회를 열기로 하다.

4) 성평등 위원회 보고

1. 성평등 감수성 및 성폭력대책 매뉴얼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다.

- 일시; 5월6일, 5월20일
- 대상; 당회, 목회실, 교육부, 성평등위원

2. 인터넷신문사 뉴스엔조이의 요청으로 향린교회 성폭력 사건등의 처리를 위한 규정을 공개하다.

4)-5 제직회

▶ 제직수련회 일정 변경

설두복 제가 안전발의를 하겠습니까. 보고를 인단 마치면.

의장 시간이 쫓겨서 급하긴 한데요. 다른 급한 보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까. 제직회랑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제직회장(이동수) 네. 시간이 벌써 3시가 넘었는데요. 사실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 부탁드린 거는 아침에 제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 가지고 예배를 못보고 조은화 목사님 방에 있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남아 있는데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게 제직회와 관련이 있지만 권사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권사회장 이종남 권사가 오늘 몸이 많이 불편해서 오늘 교회를 못 나왔고요. 저한테 부탁도 했고 저도 이 걸 지적을 해서 얘기하게 됐는데요. 권사 회장을 뽑는 게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에 선출되었고 16년도 17년도 18년도 다 안 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보고 사항보다는 이제 목회실에 요청 드린 겁니다. 올해 5월 달에 창립기념일 때 장로님이 임직을 못 하는 바람에 이게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로님 못지 않게 이게 권사님들도 중요한데. 매년 보면 투표가 아니라 그냥 권면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거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아무도 안 됐고 그 전 년에도 아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부적으로. 이걸 제가 이종남권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2015년도에 4분의 권사님이 됐는데 그 분 중에서 한 분은 지금 제직회장을 하고 있고 한 분은 교회도 안 나오시고 한 분은 권사회도 참여를 안 하시고 한 분은 다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권사회장을 못 하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내가 권사회는 맨 날 신임이 하는 거냐 그랬더니. 다 나이가 있으셔서가지고 신임이 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 다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는 권사회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이 것도 있고. 이게 창립기념일 중요한 행사에 왜 권사를 임직하는 걸 목회실에서 빠뜨렸을까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거를 목회실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그 광고 때 말씀드렸던 제직수련회 관련 건인데. 여기에 목회운영위원회 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과 제직수련회가 연기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교회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은 목회실하고에 이게 잘 되지 못했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직수련회를 제직이 준비를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차상의 목회의실에서 그거를 취소하고 저하고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성평등위가 하고자 한 쪽지를 맡아서 하고자 했는데 다 준비해서 알고 있는데 목회실에

서 연락와서 하지 말자 다른 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길 했었고. 성평등위에서도 조금 목소리가 나왔죠. 언제는 하하 하고 언제는 하지 말라고 했느냐 입이 나왔었고. 저는 이제 2주 전에 준비하려고 전화통화 하려고 하다가 그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목회실에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됐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왜 제직회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목회실에서 좌지우지하고 뭐 이번에는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느냐 라고 해서 인제 결국은 이제 지금은 하기가 어렵다 라고 해서 연기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이거를 누구를 흠집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 현주소가 왜 그런 건가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건가 구조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뭐 미흡한 거를 찾지 못했는가 문제점이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일정은 하반기로 날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은화 목사님 안 계신데 목사님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해가 없게.

김진 제가 한 번. 근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제직회장님하고 제직회하고 목회실하고 사전에 그 관련해서 얘기가 전혀 없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런 얘기를 그런 관련된 얘기가 전혀 사전에 못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처음 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동수 그 게 뭐죠.

김진 아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직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목회실에서 그거를 거부했다 그러면 목회실에서 그거를 거부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서로 얘기를 안 하셨냐고. 목회실하고 그니까.

김희현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다.

김진 아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얘기할

이정임 잘못. 조율자체가 잘못된 거죠. 처음이 아니에요.

김희현 그거는 목회실에서 실수가 있었구요. 그거를 좀 설명 드리게 나올 거 같습니다.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이동수 장로님께서도 지금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보고의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 ... 보고하는 것이었고. 거기 아예 없었던 건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

이동수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누굴 흠집내는 게 아니라. 제직회 ... 돼서 ...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2주 전에 6월 3일 이 주전에 점검을 하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말은 분들하고 연락도 하고 해야되겠다라고 했는데 어 그게 취소가 됐는데 이허게 들은거예요. 그래 왜 그랬냐 했더니 목회실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다른 걸로 바꾼다. 그런데 부목사님 저한테 연락해서 제안을 하시고 해서 그 와중에 그런 내용을 알고. 그러니까 성평등위에서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목회실에선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했고. 그니까 그게 불협화음이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목사님하고 그래서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진 교우님이 말씀하신 지금 제가 여기서 푸념처럼 얘기하는 것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김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동수 목사님하고 다 말씀을 나눴고요.

김진 아니 제가

이동수 그런 사실을 그냥 목운위원장한테 보고 하는 거예요.

의장 제가 볼 때는 이제 목회실에서 간단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창립기념일에 권사임직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주시면.

김희현 그러니까 권사임직과 관련해서는 교회 안에서 권사 임직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작년 말에 느꼈고 그것을 목회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교우부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작년 말에 구하는 작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반드시 창립 기념 주일

에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꼭 해마다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라면 2015년 했으면 2016년 17년 어려웠고 그랬잖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장로 임직과 작년에 계획을 하면서 금년 5월 달에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장로 선출 시기가 모자랐기 때문에 장로 임직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노회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봤었는데 그게 불가능 하게 되었고 그게 11월로 연기되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게 따라가게끔 된다는 게 그냥 암묵적인 연초에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사 임직에 대한 것들의 논의 자체가 금년에는 이뤄질 못한 사정이 있었고요. 그게 이런 식으로 되어 질 줄 알았더라면 목운위가 되었던 어떤 환경이 되어지는 곳에서 권사회가 됐든 이런 사정을 미리 한 번 말씀드리고 정검을 했었다라면은 좀 문제가 없을 텐데 하는 추후적인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한 몇 분에게는 그런게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에게 직접 문제제기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교회행정이 미숙 하다. 그 말은 저는 그대로 받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표현들을 제가 두어 분에게 우회적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가는데 유념해야 할 그런 부분으로 삼고 하겠고요. 개인적인 어떤 고충을 말씀드린다면 목회실 진용도 이제 짜진지가 이제 6개월 남짓 되다 보니까 실제 목회에 임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테인크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제직수련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직수련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g나 두 가지가 고려사항 있었는데 하나는 제직수련회가 계속 2월부터 늦춰져 왔었던 것은 교회에 어떤 어려운 여건들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근데 아직 덜 마무리가 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평등위원회에서 제안한 것들을 같이 하자는 거 였는데 성평등위원회가 제직수련회 때 원래는 계획을 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2주 이후인 6월 셋째 주일날을 특별 주간으로 선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그거를 갖다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한다면은 특별 주간에 조금 더 의미 있게 잘 준비해 가지고 교회적인 큰 행사로 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목회실에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결정에 해 가지고 형식상으로는 제안이 결정처럼 되어 버리기는 했는데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쉬운 지점이고요. 원래 의도는 그것만이 아니었스브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그건 못 하니까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피드백이 좀 원활하지가 못했었던 게 하나가 있구요. 그런 조금 과정에서 제 불찰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서 목회실에서는 그거 대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앞으로 협력적인 어떤 대화와 어떤 교회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목회자들이 먼저 연구해 가지고 실험적으로 발표를 해 가면서 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목회자들이 책도 구입하면서 워크샵도 준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첫 자리로 한 번 해 볼려고 하는 어떤 선의가 있었는데. 그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연락드리려 했는데 제직회장님께 하지 못하고 제직회장님은 아주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분에게 통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좀 원칙적으로 목회실에 불찰이 이번에는 컸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 드리면서 이런 혼선을 빚은 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유념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직회장님 제직수련회 날짜는 하반기인데 지금 5월인데 날짜를

이동수 정한 건 아니에요. 아직 안 정해도 상관 없죠.

의장 그러면 일단은 목사님 답변 주신 걸로

이동수 그럼요. 얼추. 목회실하고 협조 하는거니깐요.

4)-6 향린공동체협의회

▶ 5월 20일 공동체협의회 정기회의 (강남향린 농성 천막기도처, 오후 4시)

의장 또 다른 안건은

설두복 목운위 세부 시행 규칙 관련해서.

의장 네 구런데 그런 세부시행규칙도 그렇고 목운위에서 의결한 어딘 정관을 개정하는 소위원회나 이런 어떤 거기서 하는 게 거기서 제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신동일 정관말고 목운위 회의...

설두복 제가 회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운영위원회 회의시행규칙 작성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두어 달전에 얘기가 됐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이후 논의도 없고 언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장 알겠습니다.

채운석 다시 한번 올려 주시면 되죠.

의장 왜냐하면 그 간에 어쨌든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지만 목운위원장님이 공석이었고 사실 올렸더라도 사실은 그게 누군가가 책임감 있게 공유되지 못하고, 고민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기존의 제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모바일이런 거로 목운위방에 올려 주셔서, 거기에서 그냥 올리지 말고 고민을 해 와라고 숙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오늘 제가 처음 회의를 하니까 저도 정신이 없었지만 제일 필요한 건 부서 보구나 보고할 때 반드시 고민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안전을 여기에 와서 안전을 뭘 처리했으면 좋겠나라기 보다 안전제안도 미리해서 사전에 마음의 준비나 자료 준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참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 고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 전에도 아마 비슷비슷한데요. 목운위 회의에 대한 것을 인용하는 데서 비슷비슷한 애긴데. 지금 보면은 어제까지 그 어제까지 올리는 분도 있어요. 그니까 그걸 사실은 그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목운위에서 얘기할 거는 특히 안전, 안전이나 어떤 논의 할 사항은 사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힘이 남의 대표로 왔으니까 하나미 광고를 올려서 힘내요 겨울이 뭔지를 급하게 수령 뭐라고 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안전이 있다던가 협의를 해야 될 건이 있으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뭐 전주 이번 주면 이 전주 금요일까지 다 안전을 올린단든지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2, 3일이라도 최소한 각 그 신도회에서 그걸 회의를 하고 나서 그 정보를 얻어 가지고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파하고 가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거만 미리 정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니까 안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다 올려라 미리, 미리 올려라 이렇게 좀 정리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의장 신도회 월례회가가 보통 이주 전

김진 네 그레 좀 그게 사이클이 좀 안 말긴 하는데. 그니까 급하게 안전이 있으면 텔방에라도 안전을 올려 가지고 수령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하면 거의 수령하면 시간조차도 없거든요. 그리고 안전 자체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니까 안전이 있는 경우에는 토의사항이나 안전자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주일 전에 거기 텔방에 올려서 우리 목운위텔방에 다 올려 가지고 그걸 각 신도회에서 의견수렴 해 가지고 오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리를 해 가지고.

의장 목운위가 넷째 주니까 셋째 주 일요일 전까지 마감시한을 정해서. 어차피 일요일 저녁이면 가장 교인들 하고 활발해 만나서 내용하고 사실 월요일날 돌아가면 까먹으니까요. 셋째 주 일요일 저녁 12시 안으로 모든 목운위 회의자료와 안전들을 다 올리는 거로 하고 안전이 굳이 아니더라도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와야될 어떤 공유사항 그런 것들도 따로 코멘트를 달아서 좀 더 준비하고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윤선주 급박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의장 그쵸 사회부는 그렇죠

윤선주 그거를 딱 결정을 해 버리면 약간

의장 전반적으로가 셋째 주라는 얘기구요. 사실 사회부 같은 경우는 논의가 많죠 관리부도 그렇고 산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셋째 주까지는 큰 아우트라인은 좀 올라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일 여기 재정 부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이런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6월 목운위회의 시 목운위 산하 교회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연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 예정입니다. 5월 목운위에 보고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미리 사전 보고하는 게

의장 또 다른 안건 사항도 있습니까. 오늘 제가 처음이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다음에 저 또한 좀 더 치밀히 준비하고 부서 내용도 좀 더 잘 읽고 와서 해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5월 목운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마. 안건

1. 목회운영위원장 선출 (회의 개시 시)

2. 기타 안건

바. 마침 - “주기도문”

■ 별첨

전월 회의록

제 목	4월 목회운영위원회	작성자	기록서기 설두복/ 서기 홍태영
일 시	2018. 04. 22.(일) 14:00 ~ 16:33	장 소	교회 4층 식당
참석자	[당 회] 김명선, 신복희, 채운석 [제작회] 이동수 [신도회] 안정연(장여), 조재상(장남), 이정임(희여), 김진B(희남), 정정이(청여), 설두복(청남), 손정아(희청), 조남원(청신), 함 슬(새청) [부 서] 신동일(관리)(불참), 나현대(교우), 지재욱(교육), 윤영애(봉사), 홍태영(선교), 윤선주(사회), 강일국(예배)(불참), 백종수(재정)(불참) [권사회] 이종남(불참) [목회실] 김희현, 조은화		
회의 내용	<p>□ 당회보고 : 부지/건물 매각 약정서 일부 수정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운영위원회는 약정서 13조, 14조의 수정에 대한 당회안을 받기로 하다. · 본 부지 매각 협약서 수정 보고는 회의록에 비공개 할 것을 동의함(설두복 목운위원) <p>□ ‘정관 개정 관련 계속 논의 사항’에 대한 토론과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2017년) 정관개정 관련 공청회와 공동의회 과정에서 공지한 바에 따라 “공청회, 목운위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 중 이번 개정안으로 반영하지 못한 아래의 의견들은 내년도 목회운영위에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전문의 개정과 정관연구 소위원회에서 쟁점사안으로 합의하지 못한 내용 2. 창립정신, 교회 갱신 선언과 같은 혁신 정신을 반영하는 정관의 전면 개정 3. 성평등위원회 또는 성관련 사고대응기구의 조직변경” <p>이렇게 교인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2018년 목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과 향후 일정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설두복 목운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월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존 정관연구소위원회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을 듣고 다음 회의에서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안과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함 <p>□ 향린교회 홈페이지 개편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13일 창립기념주일 오픈을 목표로 다양한 기기에서의 접근성 확보, 메뉴 개편 및 컨텐츠 업데이트 작업을 추진함(홍태영 선교부장) ·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디어선교비 예산에서 집행하기로 함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운영위원장 궐석에 대한 논의 및 선출방안 결정 ① 5월 회의 개시 시에 목운위원장 선출 (18명 중 9명 찬성) <채택> ② 이번(4월) 회의에서 목운위원장 선출 (18명 중 5명 찬성) <p>■ 결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회운영위원회는 약정서 13조, 14조의 수정에 대한 당회안을 받기로 하다. 2. 5월 회의 개시 시에 신입 목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이상></p>		
비 고	- 회의록(전체) 공유 및 홈페이지 목회운영위원회 게시판 등재		